

제 99 호

연중 제 29 주일

(강림후20)

1974. 10. 20.

순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함승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감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강론】

전교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임하게 하는것

박종근 신부

상류층 부인들의 역대 보석 밀수 사건은 우리를 경악케 합니다.

민중의 입이 되어 민중의 뜻을 전달하고 민중의 올바른 여론 조성을 기능으로 삼고 있는 언론이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우리를 담당하게 합니다.

정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분투하신 지주교님 이하 많은 인사들이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어야만 된다는 오늘의 이 나라의 현실은 우리의 울분을 터뜨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긍정적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사랑보다는 미움이 정의보다는 불의가, 자유보다는 억압이 더 기세를 펴고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은 우리의 숨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오늘 전교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교주일인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무엇보다도, 전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따라서 전교는 전교사나, 성직자, 수도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없이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교는 또한 단순한 신앙교리의 전달만은 아닙니다. 전교는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씀대로 "이 지상에 하느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세나 향락에 심취된 우리 자신안에, 불화가 있는 우리 가정안에,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안에,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안에, 평화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 세계안에,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자유와, 진리의 하느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전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쇄신하여야 하며 이웃과 화해하고 사회에 정의를 수립하여 이 나라에서 억압된 자유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겠습니까.

하느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위와같은 전교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도와주셔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하면서 주님께 겸손되어 간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덕진 본당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1)개회식

□**입당송** 응답이 계시었기 주여,당신을 부르오니,내게 기쁨 기쁨이시와 이말씀을 들어주소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주소고,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이 몸을 숨겨주소서

(2)말씀의 전례

□**제 1독서**(출애굽기 17:8-13 경향잡지 p. 73)

모세가 손을 쳐들자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

□**출애굽기** ③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산들을 우러러 눈을 드노라 어디서 구원이 내게 올런고? 구원은 오리라 주님한테서 하늘과 땅 만드신 그 날한테서. ④

□**제 2독서**(디모데오 후서 3:14-4:2 성서 p. 488)

하느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춘다.

□**알렐루야** 알렐루야.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 속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도다. 알렐루야

□**복음**(루카 18:1-8 성서 p. 178)

하느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백성이 부르짖을 제 을바르게 판결하신다.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어떤 이들은 굶주리는데 다른 이들은 없는 것이 없고, 어떤 이는 비 바람에 시달리는데, 다른 이는 편안한 집에서 살고,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일도 없는데 다른 이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온갖 구원의 도구를 손쉽게 사용하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자신의 일임을 느끼고 모든이와 우리의 형제임을 자각할 수 있는 전교회 주일의 우리의 기구가 연중행사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②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책속에 길이 있다고 하였읍니다. 우리는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외인에게 질문을 받으면 신부님, 혹은 수녀님께 떠맡기며 심하면 회피와 뽀뽀나 배기가 예사입니다 주여! 이 독서의 계절을 맞아 교우 가정엔 시보, 경향잡지등을 구독하여 외인들로부터의 질문에 손쉽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주소서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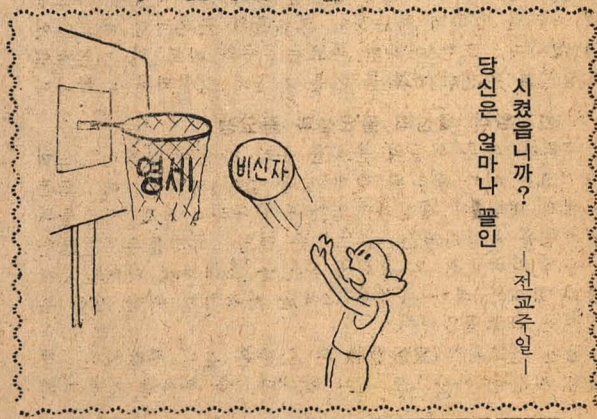
3. 풍성한 결실을 내려주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주신 당신께 우리도 겸손되어 받은만큼 나의 모든것을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되어, 당신 구속 사업 완수하는데 진정한 도구로써 임할 수 있도록 간구 하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주..... ④아멘.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인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도다.

* 순정이 산책 *



당신은 얼마나 믿으십니까?

— 전교주일 —

전교주일 교황 메시지 (요약)

1974년 10월 20일

머 리 말

교회의 선교활동의 출발신호였던 성신강림의 신비의 빛 속에서 또 다시 여러분에게, 오는 10월의 연례 전교주일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전교주일 행사는, 온 우주의 최종 목표인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새신을 주제로 삼은 성년(聖年)의 관(冠)에 박힌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오로지 인류가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하는 한에서만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새신시킬 것을 목적하는 하나의 행위로서 복음화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메시지에 대한 지식과 수락의 범위와 깊이를 넓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의와 사랑 속에서 화해의 뜻을 넓혀줍니다.

이미 1975년 성년 공포 대칙서(Apostolorum Limina)에서 언명한 바와같이 성년을 위한 이러한 기초적인 전제들은 필연적인 결과로서 교회의 보다 활발한 사도적, 선교적 활동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귀한 임무는 필연적으로 복음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년 동안에 다시 환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화 증진은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해야 할 활동의 모든 계획 중 첫째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구원의 보편적 성사(聖事)가 되도록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순례도상의 교회는 바로 그 본성에 의해 선교적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그 역사적 과정에서 자체를 새롭게 할 때, 교회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앙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심화할 것이며, 교회로부터 생명의 말씀과 증거로써 구원이 선포될 것입니다.”

개심과 화해의 전교적 의미

세계가 요구하는 개심(改心)은 단지 죄를 씻어없애는 소극적인 면뿐 아니라, 어원적인 고찰에서 확인된 바와같이—특히 적극적인 면에서 하느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접근하며,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웃에게로 향하고 접근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지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그 생활의 근본적인 목표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주의 기도’의 기본적인 요청들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 가운데 성취되어야 합니다.

선교양식 새신의 필요성과 중요성

우리가 다른 이들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모든 이가 우리의 형제”임을 깊이 자각할 때 모든 이에게 대한 관심이,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자신들의 이기심을 시정하려는 이 뜨거운 열망, 이것들은 진정한 복음적 의미에서 온 교회에 새신을 초대하게 마련인 개심과 화해에 대한 사목적 노력을 계획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참된 선교의식(宣敎意識)의 함양은 깊이 뿌리박힌 영신적 새신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 선교의식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선교를 공식적으로 시도하는 신자 개인이나 단체의 생명인 것입니다. (사도 2, 44:5, 14 참조).

복음화의 필요성과 긴급성

참으로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I 디모 2, 4). 이 계획, 즉 결진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모든 계시의 중개자이며 완성자이신”(계시헌장 7)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이 계획은 두 가지 특성을 드러냅니다. 이 구원계획은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한편 신앙으로의 부르심과 신앙인의 응답은 어떠한 상호관련도 배제한 단절된 방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분을 인정하고 충실히 섬기는 백성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교회헌장 9: 선교 교령 2참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

복음화 사업은 필요할 뿐 아니라 긴급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화를 자극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세계의 크나큰 영성의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고린토후서 5, 14). 성 바오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신 때부터 세상의 종교사(宗敎史)는 우리를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활동의 성장은 너무 느립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인내를 본받아야 한다고 변명하기가 예시입니다. 물론 하느님은 영원하시므로 참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근심함으로써 하느님의 시간을 재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지속하고자 하는 속도를, 말하자면 하느님께 강요하며 그분의 인내를 요구하는 이가 바로 죄스러운 이기심에 사로잡힌 게으르고 전교열이 부족한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교황청 전교회들은 복음화를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교회는 교회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의 은 백성이 그 거룩한 선교과업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립적인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교황청 전교회(傳敎會)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전교회가 없었더라면 새로 창설해야 했을 것입니다.

“천주여, 당신 교회가 가는 곳마다 무수한 자녀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1974년 6월 29,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 바티칸에서

교황 바오로 6세

□ 목 상 □



하느님의 침묵

정 은 규 신부

하느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들 한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한 자 들끼리도 서로 헐뜯는다. 아름다운 세상도 아니고 불의와 부정이 횡행하고 상선벌악 도 없고, 정의와 평화란 미명 아래 증오와 죽음이 빚어지지만, 하느님은 침묵만 지키 신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성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면 서 종들에게 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을 맡겼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자기 종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 종들과 셈을 밝 히려 하였다.

하느님의 침묵은 결코 침묵이 아니다. 현대인은 하느님의 모습을 제멋대로 상상하 여 그린다. 번덕스런 인간의 갖가지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하는 하느님, 순경처럼 악 한을 뒤쫓기만 하는 하느님을 상상한다. 이는 정녕 정신박약증의 어처구니 없는 소리 가 아닐 수 없다.

이 세상에는 하느님의 침묵에 유사한 침묵이 있다. “하느님의 제일 성서”라 할 때 자연의 침묵이 그것이다. 무한한 공간을 흐르는 별들의 침묵, 파도가 인 뒤의 고요한 바다의 침묵, 아침 햇살을 그리워하는 꽃들의 침묵등. 이 침묵에 귀기울이지 않는 사 람은 하느님의 무언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도리어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사랑할 줄 모를 뿐이다.

하느님은, 때로는 소리없는 소리로, 때로는 노도(怒濤)보다 더 세찬 소리로 별빛보 다 더 황홀한 빛으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색깔로 끊임없이 인간에게 말씀해 오신 다. 그런데도 인간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뭇사발고 잊혀진 친구처럼, 하느님은 언제 나 우리 문 앞에 서서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신다.

무한에 대한 불가사의한 동경과, 진리와 영생에 대한 갈망과. 사람들에게서 얻을수 있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사랑의 욕구-이것이 바로 “탕아”를 부르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유한한 시간 안에 감춰 있는 인간의 그 본 능적 실망과 무한에의 동경은 인간의 하느님께 향한 부르짖음이기도 하다.

〈경향잡지 10월호에서〉

요심이 (65) 김명오



□ 신간안내 □

루가 복음 해설

신자들의 목상 집값이 1,300원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이 주간의 성경

- 21(월) 독서(에페소 2:1-10, 성서 p. 438)
복음(루가 12:13-21 성서 P. 163)
- 22(화) 독서(에페소 2:12-22 성서 p. 439)
복음(루가 12:35-38 성서 P. 164)
- 23(수) 성 요한 까메스트라 노 사제 : 3, 28
독서(에페소 3:2-12 성서 P. 440)
복음(루가 12:39-48 성서 P. 164)

- 24(목) 성 안토니오 마리아 클라렛 주교 : 23일
독서(에페소 3:14-21 성서 P. 441)
복음(루가 12:49-53 성서 P. 165)
- 25(금) 독서(에페소 4:1-6 성서 p. 441)
복음(루가 12:54-59 성서 P. 165)
- 26(토) 독서(에페소 4:1-16 성서 P. 441)
복음(루가 13:1-9 성서 P. 166)

◎ 교향 여러분의 집 ◎

현대 사진관

김 낙 준(요한)

오거리 환전 옆
전화 ② 6289

* 교향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 이전안내

여러분이 아껴주시는
성 바오로서원이
새집으로 옮겨 새로운 마음으로 여
러분을 모십니다.
팔달로변의 중앙성당 제대쪽입니다.
먼저 집에서 약 15m 남쪽으로입니다
성 바오로서원 아필

제 4 지구 6개 본당 소식



1. **교구 성년 위원회** (21일<월> 오후 8시, 가톨릭 센터에서)
전주교구 성년대회 준비를 위한 성년위원회에 위원들의 빠짐없는 참석바람.
2. **전주지구 6개본당 중·고등 학생 연합 체육대회** (오늘, 해성학교 운동장에서)
① 자격: 신자 및 예비신자 학생, ② 종목: 축구, 농구, 배구, 넷볼, 800m계주
3. **전주지구 주일학교 아동 성가 경연대회** (다음주일, 중앙성당에서)
4. **제27차 국제 신음 협동 조합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승
가요 경연대회: 1등: 노송 신협 2등: 대건(전동) 신협 3등: 성가(서학동) 신협
5. **등산 회원모집** (주최: 가톨릭센터 등산부)
① 일시: 다음주일 (74. 10. 27 오전 7시 30분) ② 장소: 내장산-백양사 ③ 회비: 1,000원
④ 모집인원: 선착순 50명 ⑤ 접수마감: 10월 24일 ⑥ 접수처 가톨릭센터
※ 야외미사(벌석구 신부 집전). 등산에 관심있는 교우들을 삼가 초대합니다. 기념품 증정 있음.
6. **교도소 방문** 20일 오전 10시
이상용 교장 선생님의 강연과 함께 메아리 합창단의 위문 공연을 갖습니다.
7. **독일 오페라 영화 상영**
일시: 1974. 10. 23-30일까지 (27일 제외) 밤 8시 장소: 신홍 중고 강당
주최: 독일 문화원 후원: 가톨릭센터. 도 교육위원회
제목: ① 황가로의 결혼 ② 황제의 목수 ③ 자유의 사수 ④ 마직 ⑤ 보체크 ⑥ 뉘른베르크의대가수
※ 교우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입장료 무료)
8. **시내 6개 본당 방지거 삼회 회합**: 노송동 성당에서 21일<월>10 시
6개 본당 삼회 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부교사 서석주 사도 회장 이복석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학생회 체육대회 오늘 해성교 운동장에서
3. 전교주일 특별헌금과 전교회 가입요망
(회비 년 200원 사무실에서 접수)
4. 신음조합 월례회 오늘 저녁 7시반 성당 상가내 "럭키 에식장"에서 (조합이전보고. 중요 안전토의)
5. 반상회 21일: 태평 2가 22일: 교사, 중앙
25일: 중노 (매일밤 7시반)
6. 10월은 "교무금 수입의 달" 미납 교무금 완납 및 새해 교무금 자진 선입하시기 바람.
7. 방지거 삼회 전체 회의 21일 노송성당에서
□ 지난 주일금 43,317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오늘은 전교주일 특별헌금 있음.
2. 4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오늘 해성 운동장에서. 많은 관심과 협력 바람.
3. 사도회 확대 회의 10월21일(화) 개별통지 하겠음
4. 꼬미씨울 회합 오늘 오후 1시(전동에서)
5. 북자 신음조합 월례회 다음주일로 연기
지난주 성미 1말, 누계 321말 8되
□ 지난주일 봉헌금 13,96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달 사도 회장 이거영

1. 오늘도 전교 주일 많은분이 전교 회원되기 바람.
2. 4지구 체육대회 해성 교정에서 부모님들의 협조 바람.
3. 교리반 성가 경연대회 다음주 중앙성당에서
4. 예비자 영세식 다음주 오후 2시 및 유아 세례결합
참고(금, 토)오전 10~12시, 오후 2~5시.
5. 레지오 꼬미씨울 프레세더울 간부 참석요망.
□ 지난주일 봉헌금 9,61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합승철 사도 회장 조해형

1. 사도회 임원 총회 오늘 10시 미사후 각 부장, 차장, 구역장 및 공소 회장님 전원 참석바람
2. 부녀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3. 노송 신음 조합원은 통장을 23일까지 조합에 내 주시기 바람.
4. 전교주일 전교회 가입 및 특별헌금 접수바람.
(가입비 200원)
5.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합니다.
중노 1가 장성복 2,000원 중노 2가 정무능 1,500원
중노 1가 한영순 1,000원 중노 2가 김선옥 500원
남노 (이름없이) 1,000원 중노 2가 장안젤라 500원
인후 (이름없이) 1,000원 최인화 500원
지난주 신축 헌금 7,500원 누계 1,666,912원
지난주 성미 1말 5되 누계 223말
□ 지난주 봉헌금 17,36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부교사 신부 정승현 사도 회장 송재진

1. 꼬미씨울 월례회 오늘 오후 1시 30분
2. 글라라 현재회 내일(21일) 월
3. 구역 순회미사 동완산동 22일(화) 유기남(테레사) 구역장 덕 저녁 7시 30분 서완산동 24일(목) 고태석(제마) 사도회장 덕 저녁 7시 30분
4. 상임위원 명단
총무 한바오로(상갑) 이다두(영희)
재무 범베드루(창규) 유스데파노(석중)
선교 손비오 (금만) 이요왕(충근)
교육 김그레고리오(병오) 백토마스(종흠)
차회 박막태오(태복) 임가별(순성)
부녀 강모니카(용애) 이테레사(상현)

◇ 금주의 술집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이오알(충근) 전동 구역장

□ 지난주일 봉헌금 43,790원, 감사합니다. 애령회 헌금 2,000원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금주부터 반상회가 시작 되겠습니다.
21일(월) 반장, 구역장, 사도회장 회합(6시)
장소는 추후 발표. 22일(화) 사도회 임원회의.
24일(목) 덕진동 1. 5반 반상회
25일(금) 덕진동 2반 반상회
2. 시내 본당 중고생 체육대회 9시 해성 운동장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3. 시내 본당 어린이 성가 경연대회 다음주(중앙성당)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람
4. 오늘 전교주일 특별헌금 있음.
□ 지난주일 봉헌금 6,845원, 감사합니다.